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1. 11. 26(금) / 대테러종합상황실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○ 英,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'하마스*' 테러단체 지정

- 11.19 영국 내무부는 反유대인 테러를 선동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'하마스'를 테러단체로 지정할 예정이며, 同단체를 지지하거나 접촉하는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발표

* 팔레스타인 內 이스라엘 축출 및 독립국가 건설을 목표로 '87.12월 설립 / 테러단체 지정 : 美('97.10월), 英('01.3월, 군사조직 일부만 지정), EU('03.9월)

미주

○ 美 법원, 의회 난입 '큐어년(QAnon)' 조직원에 징역형 선고

- 11.17 美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1.6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* 당시 30여명의 시위대를 이끌고 가장 먼저 진입한 큐어년 조직원 「제이콥 찬슬리」(34세)에게 △징역 41개월 △보호관찰 3년 △2,000달러의 벌금형을 부여

* 1.6 「바이든」 美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확정하는 상·하원 합동회의가 열리는 의회에 난입하여 총기 등을 이용 폭력시위(사망 4명, 체포 52명)

○ 美 법원, 인종차별 혐의 시위대 살인한 백인 청소년 무죄 판결

- 11.19 美 위스콘신주 커노샤 카운티 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인종차별에 혐의하는 시위대에 총격을 가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「카일 리튼하우스」(18세)가 배심원단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발표

* '19.8.25 美 커노샤에서 흑인이 백인 경찰의 총에 반신불수가 된 데 혐의하는 시위가 약탈과 방화로 번진 날 백인 자경단원들과 순찰 중 소총으로 2명 살해

아 · 태평양

- 탈레반 참모총장, '정예화된 정규군' 창설 중
 - 11.17 「카리 파시후딘」 탈레반 정부 참모총장은 수도 카불의 某 부대 방문시 “강하면서 잘 훈련되고 교육받은 軍 창설 작업이 진행 중” 이라고 강조, 구체적인 정규군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과거 정부군 30만명(추정, 경찰 포함)에 비해서는 소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
 - * 현재 탈레반의 조직원 수는 10만명 미만인 것으로 파악
- UN 특사, “ISIS-K, 아프간 전역에서 세력 확장” 지적
 - 11.18 「데버라 라이언스」 아프간 주재 유엔 특사는 'ISIS-K가 아프간 전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반면, 탈레반은 ISIS-K의 세력 확장을 저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럴 능력도 없다'고 발표
 - * ISIS-K에 의한 테러는 지난해 60건에서 올해 334건으로 증가했다고 부연
- 하마스, 이스라엘 민간인 테러 공격으로 1명 사망
 - 11.21 현지 언론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알아끄사 사원 근처에서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의 대원 「파디 아부 슈카이템」이 총기를 난사하여 남아공 출신 이민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
 - * 同人是 이슬람 학자이자 유명한 설교자로, 하마스 측은 사건 직후 범인이 하마스의 일원이라고 밝히며 “영웅적인 작전”이라는 성명을 발표

아프리카

- 우간다, 자살폭탄테러* 관련 이슬람 성직자 등 5명 사살
 - 11.18 AP통신은 우간다 경찰이 자살폭탄테러와 관련된 이슬람 성직자 등 5명을 사살했으며, 이들은 ISIS 연계 테러단체인 연합 민주군(ADF)의 신병을 모집한 혐의를 받았다고 보도
 - * 11.16 우간다 수도 캄팔라 소재 경찰서 · 국회의사당 인근 연쇄 자폭테러로 6명 사망 · 36명 부상

파키스탄, 中 영사관 겨냥 자살폭탄 테러

- '18.11.23, 09:00경 파키스탄 최대 도시인 남부 카라치市 소재 중국 영사관에서 총격과 함께 자살폭탄 시도 테러가 발생, 경찰관 포함 4명 사망·1명 부상
 - 사건 당시, 테러범 3명은 최초 폭발물을 가득 적재한 차량을 이용해 영사관 진입을 시도했으나 촘촘한 시설 외곽 경비로 인해 실패
 - 결국, 하차 후 외곽 경계 경찰과 총격과 수류탄 투척 등 교전을 벌이다 3명 모두 사살되었으며, 이 중 1명은 자살폭탄 조끼를 착용
- 사건 직후, 발로치스탄 해방군(BLA)은 로이터통신을 통해 “압제자 중국은 우리의 자원을 착취 중인바,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공격을 지속하겠다”며 배후를 주장
- 한편, 「임란 칸」 파키스탄 총리는 이번 테러와 관련해, “파키스탄과 중국의 경제-전략적 협력을 반대하는 음모이며, 이런 사건들로 인해 아라비海보다 깊은 양국의 관계는 절대 훼손되지 않는다”고 발표
 - * 전문가들은 파키스탄이 중국과 대규모 국가 인프라 구축 사업(620억 달러)을 진행 중 무리한 차관을 도입하며 경제위기를 맞자 무장세력이 불만 표출로 공격을 자행한 것으로 분석

< 발로치스탄 해방군(Balochistan Liberation Army) >

- (목 표)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내 발로치스탄 민족 독립국가 건설('99년 결성)
 - * 테러단체 지정 : 영국·파키스탄('06년), 미국('19년)
- (조직규모) 6,000명
- (연계세력) 발로치공화군(BRA), 발루치해방전선(BLF) 등
- (활동지역) 파키스탄 발로치스탄州(이란 및 아프간 접경 산악지역) 및 신드州 카라치市
- (주요활동) ① '10.12 발로치스탄 주지사 겨냥 차량 폭탄테러로 주지사 등 8명 사상
 ② '13.7 발로치스탄州 해군기지 공격으로 14명 사상
 ③ '20.6 카라치市 증권거래소 공격으로 경찰 등 9명 사망